

유적지 순례 67

# 영풍군(永豐君) 휘(諱) 길(吉)

## 수령이 성을 버리고 달아나는데 사지(死地)를 보고도 살아 욱되지 않게 하였으니 보국의 충절(忠節) 權判官



영풍군 휘 길 정려각(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덕현)

22세 영풍군(永豐君) 길(吉)은 양촌(陽村)선생의 제 2자 지재공(止齋公) 제(躋)의 5대손으로 고조는 병조참판과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를 지낸 양평공(諱平公)지(攀)이며 증조는 이천부사를 지낸 한(韓)이다. 조부는 충좌위호군(忠佐衛護軍) 승업(承業)이고 부는 익(翊)인데 익의 생부는 지재공의 4남 연천공(漣川公) 휘의 장손(長孫) 여(勵)이다.

공은 증종 36년 출생하여 군위 현령을 지낼 때 치적이 탁월하여 임금이 비단과 갑산리 일대 임야를 하사하였다. 선조 24년 5월 상주판관(尙州判官)으로 부임하였는데 청렴하고 근심하며 정사를 처리함에 주도 면밀하니 관리들은 공경하고 백성들은 칭송이 대단하였다.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모두 피란을 획책하였으나 공은 조금도 동요치 않고 민심 수습과 상주 사수를 맹세하며 휘하 장졸들에게 “나는 나라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너희도 마땅히 나를 따라서 충성을 다하면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명하고 가족에게 “나는 보국진출할 것이다. 만약 시신 수습을 못하면 이것으로 장사하라 吾必死此 似難收屍 以此歸葬” 며 혈서(血書)를 의금(衣襟)에 써서 남기고 출전하였다. 왜적이 침공하니 상주목사 김해(金海)는 도망가고 순변사 이일(李維)이 활첩함에 공은 밤새워 고을을 순화하여 700 여 민병을 모집 군용을 갖추었지만 이일은 병사가 나약하여 성을 지킬 수 없다 하자 공은 수성을 주장하였음에도 이일은 전군을 북천변으로 이동 포진하였다. 왜군이 총포로 습격하니 순변사는 도주하고 공은 휘하 장졸들과 협전을 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궁기 아래에서 최후를 마쳤다. 성실한 부하 박길(朴傑)은 판관을 호위 진력하다가 함께 전사하였다.



영풍군 정려문과 체제공 준공기



영풍군 휘 길의 묘소(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능안)



영풍군 신도비와 왜적과 전투에서 최후를 맞음을 상징하며 두건이 잘린 문인석



밀무덤과 충마총:권길의 말이 안장에 혈서를 품고 수백리를 달려 갑산리에 도착, 공의 죽음을 알렸다.

공은 증종 36년 출생하여 군위 현령을 지낼 때 치적이 탁월하여 임금이 비단과 갑산리 일대 임야를 하사하였다. 선조 24년 5월 상주판관(尙州判官)으로 부임하였는데 청렴하고 근심하며 정사를 처리함에 주도 면밀하니 관리들은 공경하고 백성들은 칭송이 대단하였다.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모두 피란을 획책하였으나 공은 조금도 동요치 않고 민심 수습과 상주 사수를 맹세하며 휘하 장졸들에게 “나는 나라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너희도 마땅히 나를 따라서 충성을 다하면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명하고 가족에게 “나는 보국진출할 것이다. 만약 시신 수습을 못하면 이것으로 장사하라 吾必死此 似難收屍 以此歸葬” 며 혈서(血書)를 의금(衣襟)에 써서 남기고 출전하였다. 왜적이 침공하니 상주목사 김해(金海)는 도망가고 순변사 이일(李維)이 활첩함에 공은 밤새워 고을을 순화하여 700 여 민병을 모집 군용을 갖추었지만 이일은 병사가 나약하여 성을 지킬 수 없다 하자 공은 수성을 주장하였음에도 이일은 전군을 북천변으로 이동 포진하였다. 왜군이 총포로 습격하니 순변사는 도주하고 공은 휘하 장졸들과 협전을 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궁기 아래에서 최후를 마쳤다. 성실한 부하 박길(朴傑)은 판관을 호위 진력하다가 함께 전사하였다.

권길은 청렴하고 근심한 사람으로 1591년 상주판관으로 부임했다. 왜란을 당하여 부하들에게 “나는 나라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너희들도 마땅히 나라를 위하여 죽어서 상하가 모두 충성을 다하여 죽는다면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하였다. 부제학 이준(李俊)이 쓴 판관권공사명(判官權公死義銘)에는 “공의 죽음은 참으로 마땅히 죽을 곳을 얻어 죽었다 하겠다. 조정에서 순변사 이일을 파견하여 방어케 하니 이일은 목사 김해를 마중한다는 핑계로 나가려 하니 공은 정색을 하고 대변이 어지럽고 판관이 마음 부칠 곳 없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어찌 출성(出城)하고자 합니까? 하고 적과 교전하니 중과부적으로 패배하였는데 공은 전사하였다. 처음 공이 성을 지킬 것을 의논할 때 산졸(散卒)들이 수습하여 울며 맹세하기를 진충보국(盡忠報國)할 날이 바로 지금이다. 나라를 건지지 못하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호장 박길(朴傑)에게 피신하라 하니 박길은 이후(我侯)께서 나라를 저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이후를 저버리겠습니까? 하고 끝내 함께 죽었다... 슬프다. 수령이나 장수들이 성을 버리고 직분을 버리고 달아나는데 공은 능히 고립된 성을 지키고 사지(死地)를 보고도 물러나 살아서 욱되지 않게 하였으니 아무나 능히할 것인가?...명(銘)에 군신의 의(義)는 삼강(三綱)이 으뜸이니 충성과 자못 의리는 신하의 떳떳한 직분이고 아름다운 공의 한 절개는 그 마음 상설(霜雪)같았다. 네 어찌 죽지 못했나 죽으면 다 흠인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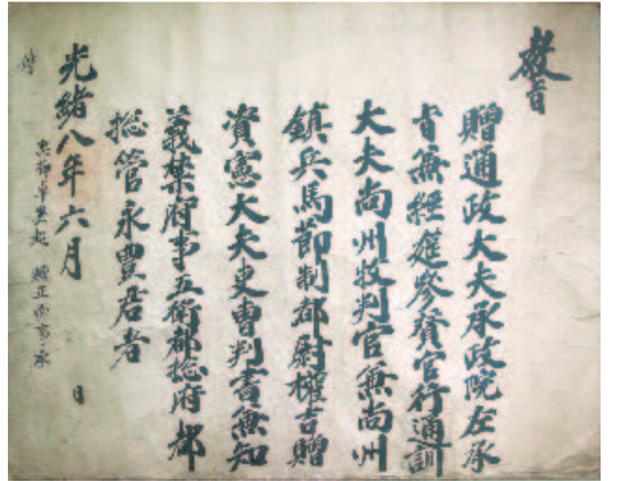
묘소는 충북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능안의 덕현에 합평이고 동쪽 인석의 두부에 칼로 벤 듯한 것은 공이 인사(刃死)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후사는 3남 3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혼(訥)이며 선전을 고종치 못함을 한탄하여 관직에 제수되면 불응하고 자손에게 유훈하여 이 뜻을 세습하라 하였다. 2남은 함(諱)이고 3남은 담(譚)으로 선조 16년 출생하여 음보로 한성판관과 진위현령을 지내고 병자호란에 전공을 세웠다. <김수 문경공종회장 권오성, 글 사진 현봉 권경석>

후사는 3남 3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혼(訥)이며 선전을 고종치 못함을 한탄하여 관직에 제수되면 불응하고 자손에게 유훈하여 이 뜻을 세습하라 하였다. 2남은 함(諱)이고 3남은 담(譚)으로 선조 16년 출생하여 음보로 한성판관과 진위현령을 지내고 병자호란에 전공을 세웠다. <김수 문경공종회장 권오성, 글 사진 현봉 권경석>



영풍군을 주벽으로 배향한 충열사(상주 북천)



이조판서로 증직된 영풍군 교지



영풍군 배위 창원 박씨의 정부인 교지



영풍군의 장자 혼 묘소(선고 계하)



흔의 묘비